

현대건설 노동조합, ‘상생을 위한 신뢰와 화합’

2011년 임단협서 사측에 위임



현대건설 노동조합과 사측이 ‘신뢰와 화합’의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

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임단협 노사 상경례’를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후 첫 노사 임단협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끈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회사측에 위임했다.

이는 현대건설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써, 현대건설 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도약을 위해 상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만이 회사 발

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양측은 이날 임단협 상경례 자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3대 성장동력의 한 축인 현대건설이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는 올해 임직원 임금인상 및 복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사안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2011년 임단협’이 최대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세대 · 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 · 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세대 · 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

세대 · 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 · 기간이 감소되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②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체된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20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 이상→22㎡ 이상 확보)도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립 · 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LH, 미래도시 건설 아이디어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www.lh.or.kr)는 새로운 주거의 방향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및 창작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1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미래주거공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동공

간의 개념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기존 산지와 구릉지를 저층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상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도시집합주거」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2년제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이나 3인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arch.lh.or.kr)로 접속하여 접수하면 되고, 참가안내서 등 응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 역시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품제출은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9월 1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당선작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과 함께 대상(1점) 200만원, 금상(1점) 100만원, 은상(1점) 50만원, 동상(1점) 30만원의 장학금 및 상패가 수여되며, 장려상(20점 내외)은 소정의 기념품 및 상패가 주어진다.

특히, 동상 이상의 당선작대표 각 1인에게는 해외 건축기행 특권과 동상 이상 수상자의 지도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보전지역내 한옥 증 · 개축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한옥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 관리 · 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 · 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 · 개축시 건폐율

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다.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다.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기간을 2년

간 연장하였다.

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간소화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였다.

마.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 완화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과 임지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일반주거지역에 임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제타업’을 추가하여,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 · 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임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

현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 · 조례 등 개정으로 인해 현행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증 · 개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대수선은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협, ‘비전(VISION) 2020’ 선포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1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협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은 ‘VISION 2020’을 선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건설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대응한 건설 신수요 창출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국민 친화적 건설환경 조성, 고품격 회원서비스 강화 및 미래지향적 경영체제 구축의 3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8개 전

략과제 등을 담고 있다.

최삼규 회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건설산업 성장의 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VISION 2020’을 통하여 대한건설협회가 신수요 창출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2010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대정부 건의 및 회원사의 건설산업 위기 극복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전문건설협회 인사발령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덕흠)는 지난 6월 21일자로 중앙회 다음과 같이 인사를 단행하였다.

- 다 음 -

◇ 상임이사에 준하는 정무직 선임

▲ 서울시회 사무처장 : 이영수 (2011. 6. 21 ~ 2014. 6. 20)

◇ 전보

▲ 중앙회 정보관리실장 장성원 서울시회 경영지원실장에 보함

분리발주 확대 / 하도급금 적정 확보 / 투명경쟁 준법준수 / 기술개발 완벽시공

www.kmcca.or.kr

축적된 기술로 새로운 공법을 추구하는

대한설비건설협회 5천여 회원사는

투명경쟁과 준법수주를 지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사업역		
공기조화설비	급배수 ·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플랜트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지역난방설비
자동제어설비	열절연설비	방음 · 방진설비
태양열설비	자동창고설비	무대기계장치설비
냉동 · 냉장설비	주방설비	철도기계신호설비

가스시설시공업(1종)업역

도시가스공급 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급급시설 · 저장소시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45-1
 TEL. 02) 6240-1100(대) FAX. 02) 6240-1114